

2020년 첫 번째 호 (통권 30호)

별마을 일기

(星村, 별성 마을 촌)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 이해인수녀님의 봄일기 中 -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성촌의집
www.sungchon.or.kr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별마을 이야기

(星村, 별 성 마을 촌)



Contents

2020 Vol. 30

- 03 성촌의 한해살이
- 04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 06 별마을 이야기#1 (함께 기도해요)
- 07 별마을 이야기#2 (마음은 청춘)
- 08 별마을 이야기#3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
- 10 별마을 이야기#4 (정년퇴임과 새로운 도전)
- 11 별마을 메모리즈
- 12 행복한 동행
- 14 공감지기
- 15 감사합니다



2020년 성춘은 사람중심의 따뜻한 복지를 실천합니다.

“사람중심”

“따뜻한 복지 실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까요.

사람 중심에 대한 성춘의집에서의 담론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

서로 경청하며 공감하는 문화

따뜻한 복지실천에 대한 성춘의집에서의 담론

각자의 생활방식, 삶을 존중하는 실천

건강한 생활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실천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

이는 무형을 유형의 어떠한 것들로 채워나가는 시간들일 겁니다.

올 한해가 그 아름다운 유형의 어떠한 것들이 채워져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아직은 사람 중심의 의미가 각자 다른 생각의 잔상으로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는 존중하는 경영이 어떠한 것인지,

서로 경청하며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용자들의 각자의 생활방식을, 삶을 존중하는 실천은 어떠한 것인지를 풀어갈 것이며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올 한해 고민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성춘의집 2020년도 잘 걸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 우리는 지금



최근 코로나19의 지역확산과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시설에 대한 예방적 활동이 강화되면서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2월20일경부터 성촌의집은 예방적 차원으로 외부활동 제한, 외부방문객 출입제한, 직원들도 출·퇴근 외에 주말에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으로 활동 제한을 실천하는 것으로 3월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건강체크를

37.5도 일 때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직원은 37도부터 관리가 들어가 “출근합격”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직원 출·퇴근시 체온체크 필수, 이용자 또한 아침, 저녁 체온체크 필수

열이나나요, 기침이 나오요, 인후통이 있나요, 무기력증이 있나요 등...

직원들과 이용자들의 건강상태 체크체크...



기관 내 구석구석 손소독제 비치

손 소독제 비치하여 필요할 때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견실 운영

외부방문자가 부득이 시설내로 들어올 경우

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견실 이용후에는 소독은 필수죠...



하루2번 에탄올 소독 / 일주일에 한번 코로나 방역실시

아침, 오후에 에탄올 소독 : 본관동 출입문, 사무실, 화장실 등의 모든 손잡이, 난간, 안전바, 엘리베이터, 세면대등 손이 많이 가는 곳에는 소독합니다.

생활실도 출입문, 안전바, 엘리베이터, 쇼파, 식탁, 세면대, 싱크대 등을 소독합니다.

부평구청에서 그리고 자원봉사팀의 지원으로 매주 1회씩 코로나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 내부, 외부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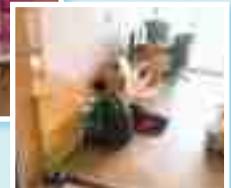


식사를 이렇게

남자생활동, 여자생활동 별도 식사를 하되, 되도록 마주앉아 식사하지 않도록 자리배치를 하고 각자 방에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한쪽 방향으로 앉아 먹는 동안 대화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끌 경우에도 비닐장갑을 끼고 험으로써 손으로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매일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하기 생활화, 마스크 착용 필수!!!

하루 3번이상 손씻기, 이용자 및 직원들 30초 정도 손씻기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30초인지 알 수가 없어서 '퐁당퐁당' 노래를 부르며 손 씻기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성촌의집 옥상이나, 녹색공간, 건물내의 이동을 하더라도 수시로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든, 실외든 당연한 일이죠



사회적 거리를 두되 마음의 거리를 좁히도록

성촌의집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안부의 전화를 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잘 지내고 있는지, 힘내시라고

보호자들께서는 5주째 외출 제한으로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간식을 사서 보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며 서로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유력한 감염원이 될 수 있기에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은 대중교통 말고 자가용으로 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돌아가더라도 카풀을 이용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되도록 외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격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다종시설은 가지 않는 것으로 예방활동을 퇴근후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활동반경에 따라 감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



함께 기도하세요.

성촌의집에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힘들어져 성촌의집 내부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2월 23일 성촌의집 가족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승원님은 매일 언제 교회에 갈 수 있는지 복지사에게 물습니다.

“언제 교회를 갈 수 있어요?”

복지사가 말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코로나 유행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승원님의 바램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의 작은 바램에 복지사가 할 수 있는 말은...

“교회에 다니는 직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갈 수 없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월 26일 가족분들이 생활동 식탁에 성경책을 들고 모여 앉았습니다.

복지사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어떤 일인지 물어 보았고, 성촌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대답합니다.

영준님이 예배 인도를 하고,

정호님이 인터넷에서 목사님 설교를 찾았으며,

승원님은 성경 말씀을 찾아 읽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촌 가족들은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촌 가족들이 휴게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경건함이 느껴지고 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져 하루 빨리 자유롭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도 빨리 낫고 교회도 빨리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원님의 기도-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청춘



제 이름은 김봉규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이제 60세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저의 흰머리를 보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광고에는 쇠불암 아저씨도 아직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전국노래자랑 할 때 송해 할아버지도 아직도 나옵니다. 그러니 아직 할아버지라고 불릴 나이가 아니죠. 하하.

저는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듣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신나는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고서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매니아라서 극장가서 영화를 자주 보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화채널들을 즐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영화내용을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가끔 영화를 설명할 때 그 영화를 안본 사람들에게 스포일러가 되기도 해서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하하.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신이 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60대는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살아야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장 애창하는 노래를 불러봅니다.

"야이~!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영우님의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영우님이 핸드폰 알람소리에 눈을 뜹니다.

‘오늘 아침 메뉴가 뭐더라..’

밥을 먹기 전 부지런히 샤워를 하고 TV를 켜봅니다.

오늘도 뉴스에서는 ‘코로나19’ 소식을 전하고 있네요.

스포츠 채널로 넘겨봅니다. 영우님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히 야구를 즐겨봐요

아침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야구를 보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늘 메뉴는 게살아채죽이네 요~ 후식으로 요플레까지 먹고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녹색공간에는 하얀색 목련이 꽃망울을 피웁니다. 봄이 오네요~

아~ 산책하기 좋은 날씨다~

평소라면 아침 식사 후 전동휠체어를 타고 동네 한 바퀴 돌며 아침 공기를 마시곤 했지만..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찌뿌둥한 요즘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요

“우리 운동해요!”

언제나 우리의 건강을 챙겨 주시는 김용애 물리치료사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들어오세요”

밝은 인사와 함께 웃으며 들어오는 김용애 물리치료사님 ‘고마우신 분’

휠체어에 앉아 눈 밑으로 흘러내리는 안경을 추스른 후 짧은 인사를 건네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하셔야죠! 같이 운동 해볼까요?”

이렇게 오늘도 아침운동으로 몸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물리치료가 왜 물리치료인지 아세요? 병을 물리치료구.”

-어느 아침을 맞이하는 복지사의 썰렁한 농담 中-

영우님과 함께 배워보는 간단한 스트레칭!!

지금 바로!! 하던 일 멈추고!! 따라해 보세요!!



어깨를 위로 올리고 내리고를 천천히
5회 반복합니다. (으쓱으쓱)



팔을 뒤로 향했다가 제자리 5회 반복합니다. (뒤로 나란히)
이때 어깨는 올라가지 않아요!



상체를 세우고 양팔을 쭉 뻗어 올리고 내리고 천천히
5회 반복합니다. (앞으로 나란히)



양팔을 살짝 구부려 좌우로 왔다갔다 합니다.
이때 시야는 정면!



왼쪽팔에 통증이 있다면 오른손으로 왼쪽 팔목을 잡고 일직선이 되도록 천천히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 5회.



양팔을 살짝 구부려 벽에 손바닥을 댄 후 벽과 일직선이 되도록 서주세요.

좌우 한팔씩 벽에 손바닥을 짚어 가며 올라갑니다. 최대한 올라간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하세요. 이때 심호흡 '후후'
다시 아래로 천천히 한팔씩 내려옵니다. 이동작을 3회 반복, 이때 몸이 벽에 기대지 않도록 일직선 유지해주세요!

정년퇴임♥ 그리고 새로운 도전.



근택님은 굿프랜드(직업재활시설)에서 얼마전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복지사는 근택님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회를 물었습니다.

“근택님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돈 벌어야 하는데 왜 일을 하면 안돼요? 나는 굿프랜드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10여년의 오랜 시간 일을 해왔던 곳인데 정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김대식 담당복지사는 1월의 어느날 근택 님과 햇살이 따뜻한 창문가에 앉아 따뜻한 믹스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굿프랜드에서 일하지 못하는건 알아요. 다른데는 없어요?”

“오랫동안 일하셨으니 취미생활 하시면서 쉬는건 어떠세요?”

“돈은 계속 벌고 싶어요.”

“왜 돈을 벌고 싶으세요?”

“나중을 대비해서 벌어야죠. 아프면 돈 많이 들잖아요. 또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입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으니까요.”

“인철이가 하는 거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어떤거요?”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접시도 만들고 필통 같은 것도 만드는 거요.”

“아, 한지공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그거 해보고 싶은데..”

2019년에 같은 층에 살고 있는 동료분들이 현대공예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생으로 한지공예를 하셨었는데, 근택님은 그게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평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근택님에게는 한지공예가 부쩍 눈에 들어왔나봅니다.

“그럼, 우리 현대공예직업전문학교에 문의해서 다닐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꼭 해요.”

근택님이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확고했습니다.

김대식 사회복지사는 한지공예로 직업훈련을 하는 현대공예직업전문학교에 전화를 하여 올해도 직업훈련과정을 모집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모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필요한 정보를 근택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택님. 한지공예 올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럼 빨리 하고싶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테니까 같이 알아봐요.”

“알았어요.”

그렇게 근택님은 현대공예직업전문학교에서 모집하는 한지공예 과정에 신청하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근택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한지공예 과정에 신청하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기철 사회복지사가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3주에 걸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택님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 직장에서 오랜기간 근무했던 근택님이 다른곳에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하는데요. 근택님은 한지공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To be continued....



별마을 메모리즈

설연휴



설연휴는 역시 민속놀이죠
투호놀이와 윷놀이. 내기는 필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소시진전을 부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영화관을 다녀왔습니다.

성촌법인 시무식



성촌법인의 시무식이 있던날
성촌의집, 우리들의집, 굿프랜드 모든직원이 모두 모여 2020년 한 해의 업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사업설명회



2020년에는 어떤 사업이 시작되는지 이용자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 사
업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년퇴임



굿프랜드에서 10여년을 근무하신 근택님과 옥란님의 정년퇴임을 맞이하여 굿프랜드
에서 소정의 선물과 정년퇴임 파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매달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메뉴위원회 진행을 합니다. 가장 인기 많은 메뉴는?
라면이라고 하네요~

메뉴위원회

‘행복한 동행’ 그 이닝의 아름다움

2019.12. ~ 2020.02.

강인성 보호자님



부식세트 후원

교촌경인유통



치킨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지사



쌀 후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생활용품 후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부식세트 후원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쌀 후원

동암교회



떡 후원

떡형(권혁규님)



떡 후원

부평감리교회



쌀 후원

하나클럽



후원금

좋은이웃들

2019.12. ~ 2020.02.

반딧불봉사단



시설 환경관리

태양봉사단



식사 지원

PEACE봉사단



시설 환경정리 및
이용자 정서지원

동그라미봉사단



명절 프로그램 지원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이 활동한 봉사단체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는 아낌없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
앞으로도 성존과 가치 있는 삶을 통해
행복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요~

자원봉사자 모집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에너지로 우리의 희망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성촌의집에서는 장애인의 일상과 추억을 함께 공유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개인, 가족, 단체, 동호회, 기업 등 여러 형태로 활동 가능합니다.
함께 희망을 나누고, 일상을 공감할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들을 기다립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문의주세요

성촌의집 : 032-425-2571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성촌의집

장애인의 자립을 돋는 마을

“동암누리”



사랑의열매

—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동암누리”

동암누리는 십정2동(열우물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성촌의집 장애인들이 십정2동 마을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공동체입니다.

별마을 사람들이 자립해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밥짓기, 청소하기, 세탁기 사용하기, 가스(전기)레인지 사용하기, 현관문 도어락 열기, 분리수거 하기, 돈관리 하기 필요한 물건 구매하기 등등 셀 수 없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것들은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가끔 잘 지내는지 근황을 물어봐주는 사람, 함께 놀러갈 수 있는 사람 등 말이죠.

별마을 사람들이 자립할 때 필요한 관계~! 십정2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여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마을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모임을 말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2020년 올 한해 동암누리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돋는 마을 “동암누리”
우리 마을을 위한 즐거운 참여! 기대해 주세요~! Coming Soon !



참여
문의

성촌의집 032-422-0573
직통번호 070-4483-5301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



후원자 명단 (2019.12.01.-2020.02.29.)

+ 신규후원자

개인 : 박왕진, 백설희, 백준희, 서영재, 서하나, 정상용

단체 : 하나클럽

+ 지정후원금

개인 : 송성희, 이사미, 이은주(성촌의집), 임미정

단체 : 인천공동모금회

해피빈(아이디) : 강민형, 강성호, 김기철, 닉간, 박명숙, 빛과소금아름다운세상, 아이리스, 에이취, 연우, 이미복, 이사미, 이은주(성촌의집), 최원준, 체르, 향동베어스, CoffeeHolic, cchcake001, hamas, kkztt, liiy_h, liiyh73, liiyh732002, riu0213, pcclub815

+ 비지정후원금

CMS : 김기순, 김은미, 김인수, 박경진, 변문수, 손대원, 윤재경, 이구형, 이상진, 이은주(부평우체국), 정금자, 정민호, 조광래, 조근태, 조성숙

개인 : 강덕환, 김기순, 김도환, 김복수, 김현보, 박남호, 박왕진, 박점숙, 백설희, 백준희, 서영재, 서하나, 송성희, 신진자, 신치남, 유계월, 윤진규, 이밀선, 이미복, 이향란, 장 순, 장연희, 전정호, 정민영, 정상용, 정현주

단체 : 건강길약국, 교촌에프앤비(주), 동암교회, 라성약국, 유진기업, 익산유압, 인천농산물, 인천중앙감리교회, 하나클럽,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모금함 : 부개우체국, 부평대로우체국, 삼산우체국, 전주콩나물국밥, 차우차이찜뽕, 최승민베이커리

+ 후원물품

이용자 생활가구지원 : 태은실

이용자 간식지원 : 권혁규, 교촌경인유통, 동암교회, 부평감리교회, 장 순

이용자 일상용품지원 :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오현주(동그라미봉사단), 장 순

이용자 주부식지원 : 강인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부평감리교회, 이명식(태양봉사단)

이용자 프로그램지원 : 오현주(동그라미봉사단)

차량관리지원 : 시흥현대모터스

직원독감예방접종지원 : 윤재경(세브란스의원장)

기타물품지원 : 박왕진, 원부규, 이미복, 이소정, 이향란, 장 순

자원봉사자 명단(2019.12.01.-2020.02.29.)

개인 봉사자

김상아, 김세희, 김예은, 김향민, 노연우, 라자바뜰, 서승현, 이상민, 전미애

단체 봉사자

★ 깨끗한하루 봉사단 – 시설 환경정리, 이용자 정서지원

가인선, 강기철, 박 준, 조재현

★ 동그라미 봉사단 – 전부치기 프로그램 진행

오현주회장, 나태현총무, 김기복, 방혜원, 안영란, 이금희, 최계한

★ 우리들 봉사단 – 이용자 정서지원, 시설 환경정리

강건희, 유나경, 이경민, 이승민, 이은서, 이지원, 정재민

★ 태양 봉사단 – 이용자 종식지원

이명식대표, 김춘숙고문, 김정은총무, 김영분, 김명순, 김은심, 김점업, 백숙림, 심명임, 정명임

★ PEACE 봉사단 – 시설 수리비 지원, 이용자 정서지원

이미정, 고경호, 김새힘, 김일곤, 김지숙, 김현정, 노연용, 노혜진, 박상열, 박주영, 박현이, 서영곤, 손태환, 우지훈, 이승복, 이자은, 이정희, 이홍진, 정 훈, 최유림, 최유정

2019년도 세입 · 세출 결산서

세 입			세 출		
항목	예산액	결산액	항목	예산액	결산액
입소비용 수입	4,944,000	4,944,000	인건비	1,092,614,350	1,092,614,350
보조금 수입	1,303,884,960	1,303,886,530	업무 추진비	300,000	300,000
후원금 수입	56,448,596	60,981,096	운영비	77,981,140	77,612,598
전입금	2,700,000	2,700,000	시설비	61,229,700	61,217,270
이월금	31,043,584	31,043,584	운영비	104,786,574	104,782,610
접수입	14,914,230	15,039,372	사업비	49,844,600	49,844,600
합계	1,413,935,370	1,418,594,582	예비비 및기타	27,179,006	222,626
			차년도 이월금	0	32,000,528
			합계	1,413,935,370	1,418,594,582

성촌의집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민은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협은행 301-0072-5929-41

우체국 100115-01-000694

새마을금고 9002-1870-3578-7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모금함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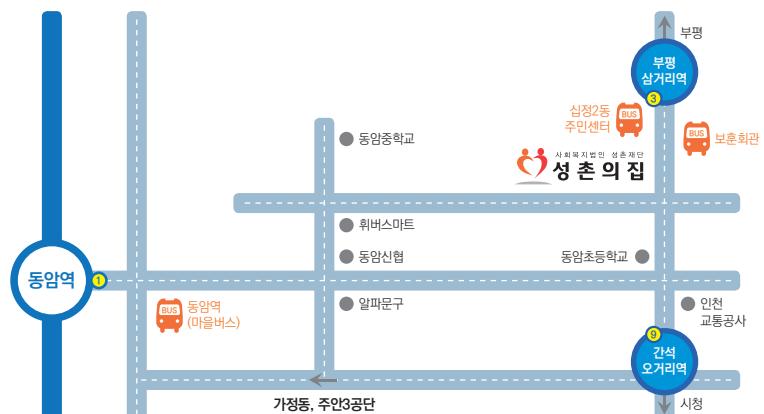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생활용품, 여성용품)
사무용품 (A4용지, 파일, 각종 문구류)
가전제품(건조기)
사무용품(컴퓨터)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BUS/버스

마을버스 : 531, 532A, 532B, 533, 535, 536, 537, 538, 539,
564-2(동암역 하차)

시내버스 : 2, 111-2, 34, 45번(심정2동주민센터,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역(1번 출구)
인천1호선 : 간석오거리역(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3번 출구)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별마을이야기 2020년 첫 번째 호 (통권30호)

발행처 | 성촌의집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향란 편집위원 | 김기철, 유성우, 장연희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심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